

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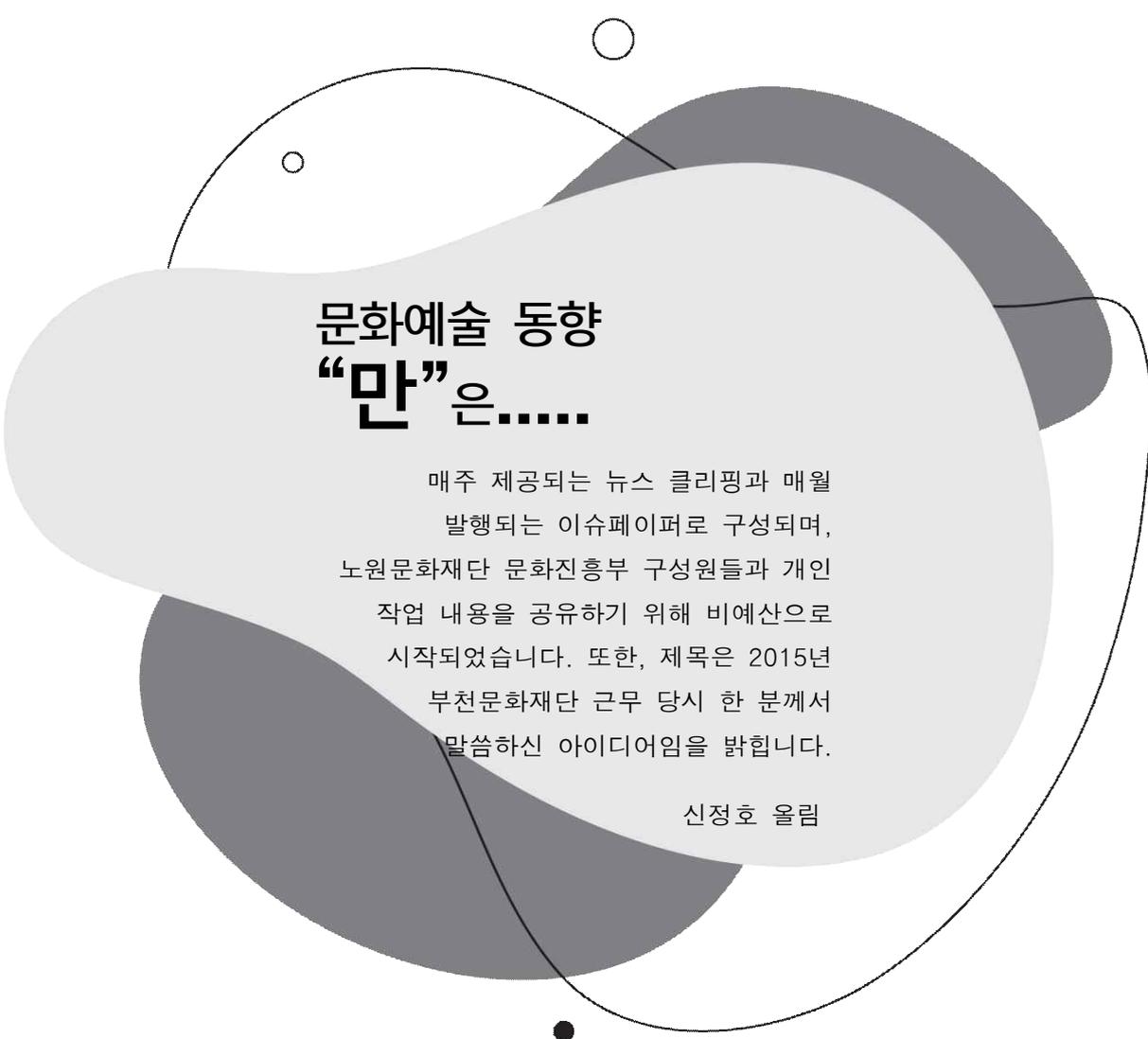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5.10.20.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목차

제32호 :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1
제31호 :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4
제30호 :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7
제29호 :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10
제28호 :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13
제27호 :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16
제26호 :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19
제25호 :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22
제24호 :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25
제23호 :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28
제22호 :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31
제21호 :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34
제20호 : 문화예술 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 공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37
제19호 : 지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40

제18호 :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43
제17호 :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46
제16호 :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49
제15호 :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52
제14호 :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55
제13호 :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58
제12호 :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61
제11호 :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64
제10호 :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67
제09호 :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69
제08호 :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71
제07호 :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73
제06호 : 타겟플랫폼 위력속 공연장 성장 국제미술장위축, 1인가구증보문화복지고민감치는 자체	75
제05호 : 초개년화시 확산경제위기 속에서 역할 재탐과 지속가능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78
제04호 :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80

제03호 :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82
제02호 :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84
제01호 : ‘문화한국2035’ 발표속 문화예술 자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86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지난 한주 문화정책 동향은 K-컬처의 경제화와 한류 지속 전략이 강화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예산·인력 축소로 공공성과 다양성이 약화되고, 국립예술단체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문화 예산 급감 속에 자생력 회복과 로컬 창의성·공동체 기반 재생을 모색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 방식**
 -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분야서 1조4천500억 부가가치 발생”(한국세정신문, 2025.10.14.)
 -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 1조 4,554억·음악 2,401억 부가가치, 고용 1만8,693명 창출
 - 경계에서 피는 문화: 로컬이 글로벌을 품는 법— 한류의 다섯 가지 특징(조선일보, 2025.10.14.)
 - 한류 지속 비결은 ①보편 감정+로컬색 ②포용적 접근성 ③혼종 미감 ④팬 참여 공동체 ⑤도시·일상 확장
-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와 국립예술단체의 수도권 집중 해소 과제**
 - ‘간판’만 옮기는 국립예술단체 이전?...지역문화 ‘자생력’부터 키워야(데일리안, 2025.10.17.)
 -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논란 단순 이전보다 지역이 스스로 문화콘텐츠 생산·소비하는 자생력 강화 필요
 - 국립예술단체 공연 85% 서울에....문화 격차 심각(TBC뉴스, 2025.10.13.)
 - 국립예술단체 공연 최근 8개 단체 중 85.5% 서울 집중·대구 1.6%·경북 1.1%...지역 격차 심각
 - 국립예술단체 ‘지방이전’ 속도조절...최휘영 장관 첫 입장 표명(뉴스1, 2025.10.15.)
 - 최근 5년 국립예술단체 공연 수도권 88.1%, 호남 1.9%·영남 4.5%...지방 소외, 이전 속도조절 논란
 -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최휘영 장관 “적극 추진”(뉴스1, 2025.10.15.)
 -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뮤지컬컴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문체부 예타 재 준비
-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약화를 초래한 尹정부의 예산 및 인력 축소 정책**
 - 윤 정부 장애예술 전담부서 폐지...李정부는 어떻게?(비마이너, 2025.10.16.)
 - 윤 정부 장애예술 전담 부서 1년 만에 폐지...인력 5명→2명, 팀으로 축소
 -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경향신문, 2025.10.13.)
 - 공공기관 인력 1만 2천여 명·예산 9600억 감축...공공병원·복지공단 등 의료 공공성 약화 논란
 - 尹 문화 긴축의 후유증: 이러다간 ‘K-컬처 뿌리’ 흔들린다(더스쿠프, 2025.10.15.)
 - 尹 정부 문화예산 2023년 1,207억→2026년 722억, 40.2% 감축...예술강사 5,021명→4,613명 축소
- **문화행정의 정치적 개입과 대표 인사의 질차·적정성 논란**
 - 문화의 세기,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용어 바로 읽기 (39) 문화기반시설의 대표(울산저널i, 2025.10.17.)
 - 울산 문화기반시설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논란...전문성·시민문화권 반영한 대표 선임 필요성 제기
 - ‘12·3 계엄 후부터 대선 전까지’ 윤석열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경향신문, 2025.10.14.)
 - 윤석열 정부 계엄 이후 대선 전까지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단행...질차·적정성 논란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난시대’... ‘정치적 입김’ 의혹(경기일보, 2025.10.16.)
 - 인천문화재단 대표 2명, 4년간 중도 사퇴...임기 3년 중 1.2년·1.6년만 재직
 - 신선교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7개월만 돌연 사임(경인일보, 2025.10.16.)
 - 신선교 오산문화재단 대표, 임기 2년 중 7개월 만에 사임...후임 선임 절차 착수
- **문화 경쟁력 강화 예산 확대와 예술교육 축소 간의 정책 불균형 논란**
 - 이 대통령 “문화 예산 9.6조...전년 대비 8.8%↑경쟁력 강화”(이뉴스투데이, 2025.10.14.)
 - 26년 문화예산 9.6조 원 편성·전년 대비 8.8%↑...K-콘텐츠·관광 혁신 등 5대 전략 추진
 - 학교 예술교육 예산 540억→130억...956곳 중단(아시아경제, 2025.10.14.)
 - 학교 예술교육 지원예산 540억→130억 축소, 956곳 중단...문체부·교육부 책임 공방 속 학생 피해 우려
- **AI 활용을 통한 창의성 확장과 포용적 문화 참여 기회의 확대 흐름**
 - ‘발달장애인이 AI로 창작’한 음악... 제이엘한꿈예술단, 공연 개최(중부일보, 2025.10.13.)
 - 발달장애인 예술단 AI 활용 창작곡으로 뮤지컬 공연 개최...장애인 인식 개선·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정재승 교수 “AI 시대엔 글쓰기보다 이야기 능력이 중요”(한국경제, 2025.10.15.)
 - “AI 글쓰기 능력 인간 추월”...명동 강연서 구술평가 도입·스토리텔링 등 말솜씨 역량 강조
- **지역문화 예산 축소와 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불균형 문제**
 - 지역문화 예산, 8년동안 61.7% 축소(경남도민일보, 2025.10.16.)
 - 지역문화 예산 2019년 5,011억→2026년 1,917억 원...8년간 61.7% 감소·격차 5,308억 원
 - “선심성 예산 막아야” vs “지역문화 죽이기”(당진신문, 2025.10.18.)

- 당진시의회 문화예술 사업 5건서 시비 총 2,400만 원 삭감...단체 반발
- 하남, 문화재단 2026년 출연금 101.3억(e시터뉴스, 2025.10.15.)
 - 2026년 문화재단 출연금 101.3억 편성...전년 대비 9.23%↑, 인력·시설·교육·공연 운영비 증액
- 친환경 명분의 정책·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생태·재정적 책임성 논란
 - 기업이 쓴 재생에너지, 85%는 '무늬만 친환경'...돈으로 때운 '녹색프리미엄' 함정(경향신문, 2025.10.13.)
 - 최근 5년 기업 재생에너지 38TWh 중 85.3%(33TWh) '녹색프리미엄', 감축효과 없어 그린워싱 논란
 - 3,700억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즉각 중단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서울환경연합, 2025.10.11.)
 - 서울환경연합 3,700억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전시행정·생태훼손·세금납비 지적, 즉각 중단·선거 검증 촉구
- 로컬 문화와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흐름
 - 원더풀 코펜하겐, 로컬 라이프스타일 체험형 도시 코펜하겐 알린다(DiscoveryNew, 2025.10.13.)
 - 덴마크 관광기구 '원더풀 코펜하겐', 로컬 라이프스타일 체험형 관광 강조...지속가능 건축·미식·수변활동 홍보
 - 포틀랜드·시애틀에서 마주한 또 다른 '로컬'(뉴스핍, 2025.10.13.)
 - 포틀랜드·시애틀 파머스마켓·푸드카드 등 로컬 문화가 도시 활력 원천...'로컬이 기회다' 강조
 - ④지역 색깔 담은 다채로운 문화예술(매일신문, 2025.10.16.)
 -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올해 관객 1만 8천 명...입주작가 6→8명 증원·150억 예산 투입
 -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뉴스핍, 2025.10.13.)
 - 성수동 '한국의 브루클린' 부상...삼표부지 개발·n분 도시 실현으로 세계적 주목
 - 로컬크리에이터가 다시 일으킨 도시 '군산'의 두 번째 전성기(뉴스핍, 2025.10.13.)
 -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으로 구도심 재생·청년 참여 확대...두 번째 전성기' 맞아 지역 활력 회복
- 유희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청년·주거 자산 창출 흐름
 - 버려진 집이 문화·청년·주거 자산으로...'한국형 빈집 활용' 성과 속속(뉴시스, 2025.10.13.)
 - 국내 빈집 임대주택·문화공간·청년거점 등으로 재생...지역 활력·주거안정 성과, 제도 지원 과제
 - 80년 만에 열린 산업유산...부산 동일고무벨트 공장, 국내 최대 규모 예술전시로 탈바꿈(문화일보, 2025.10.13.)
 - 부산 동일고무벨트 공장 80년 만에 개방...111개 폐지관 설치·국내 최대 규모 전시
 - 50년 넘은 양곡 창고, 주민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연합뉴스, 2025.10.12.)
 - 양구군 45.5억 들여 5동 창고(총면적 1,560㎡)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노후 호텔 리모델링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문화지움' 23일 개관(연합뉴스, 2025.10.13.)
 - 노후 호텔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문화지움' 23일 개관...전시·공연·연습실 갖춘 지역문화 플랫폼
- 도시 상권 침체와 지역 청년 참여를 통한 문화 기반 활력 회복 노력
 - "1년도 못 버티고 줄줄이 망해 나간다"...신촌의 몰락(한국경제, 2025.10.14.)
 - 신촌 상권 공실률 11.3%로 서울 평균 8.7% 상회, 권리금 사라지고 임대료는 여전히 고공행진
 - "직접 문화 콘텐츠 기획... 시골 마을의 속살 체험"(세계일보, 2025.10.13.)
 - 전남 강진 '돌맹이마을' 한달살기 청년들이 빈집 개조·막걸리 제조 등 직접 기획·참여해 지역 활력 제고
- 치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주민 정서 지원 강화
 - 완도군, 40억 투입 '마음 치유 센터' 건립(J로컬미디어, 2025.10.13.)
 - 국비·재단 포함 40억 투입해 구 대우병원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 '마음 치유 센터' 개관
 - 고성문화재단, 예술 치유 주간 '예술로 연결되는 고성, 예술연고' 운영(News21일간, 2025.10.14.)
 - 고성문화재단 예술 치유 주간 6개 프로그램 운영...치매 보호자 대상 4회 진행
- 주민 참여와 공동체 중심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모색
 - ⑩내 제안은 왜 사라졌을까 ...주민참여예산제의 허와 실(춘천사람들, 2025.10.14.)
 - 춘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반영률·탈락 사유 불투명...정보공개·결정권 확대·예산 규모 강화 필요
 - 공간이 아닌 관계를 채우다(brique, 2025.10.13.)
 - 전주 원도심 재생 공간 채우기보다 사람·관계 중심 접근 강조...지속가능성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공동체 연결에 달려
- 지역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분권·예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 흐름
 - '성장중독' 사슬 끊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한겨레, 2025.10.16.)
 - 한겨레 226개 지자체 회복력 평가...3영역 38지표 분석, 분권화·공공화·사회혁신 전략 제시
 - 시간·인연 쌓인 예술, 마을 깊은 사연까지 파고드는 동력원 되다(제주의소리, 2025.10.17.)
 - 하나아트 북촌리 주민 10회 인터뷰 바탕 창작극 '북촌 큰 나무의 기억' 초연
- 도서관·문화시설의 복합화와 체류형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흐름
 - 지난해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달아'...예산도 축소(매일신문, 2025.10.13.)

-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 휴·폐관, 예산 삭감 여파...이용 수요는 증가해 지원 확대 필요
-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깨...부담없이 찾는 ‘핫플’(울산일보, 2025.10.13.)
 - 일본 다케오 도서관 서점·카페 결합·연중무휴 운영으로 연 90만명 방문...도시 랜드마크·문화허브화
- 대구 수성구, ‘체류형 문화도시’로 도약...수성못 수상공연장·미술관 클러스터 본격화(아이뉴스24, 2025.10.13.)
 - 대구 수성구 수성못 수상공연장·미술관 클러스터 조성해 체류형 문화도시 도약...교육·경제 연계 추진
- 예술창작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입주 작가 지원 체계의 실효성 과제
 - 부평 문화공간 시소, 입주 매력 없어 ‘텅텅’(기호일보, 2025.10.14.)
 - 부평 ‘시소’ 입주 작가 주 30시간 기준 미달...월평균 10~30시간, 활용도 저조
 - 지속 가능한 예술 창작, 레지던시 새집 짓기(경남일보, 2025.10.14.)
 - 국내 레지던시 30년 역사에도 예산·정치 변수로 잇단 폐쇄...광주 호랑가시 창작소만 12년간 자립 성장
- 소장품 기반 기획 강화와 미술관의 정체성·지속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전환 필요
 - 소장품이 콘텐츠가 될 때... 미술관은 살아있다(경기일보, 2025.10.14.)
 - 뉴욕 미술관 소장품 재해석·과감한 기획으로 창의성 제고...한국은 세련된 건물 등에 집중 전시 질 개선 필요
 - 뉴욕엔 많고 한국엔 부족한 ‘이것’...K아트 더 성장하려면?(동아일보, 2025.10.13.)
 - 뉴욕 미술관들은 소장품 연구·과감한 기획 전시로 정체성 강화, K아트도 지속성 위해 소장품 기반 필요
 - 런던의 새로운 보물창고, V&A의 ‘몰입형 수장고’를 소개합니다(한국경제, 2025.10.14.)
 - V&A 런던 동부에 ‘이스트 스토어하우스’ 개관...25만 점 소장품 공개, 몰입형 개방형 수장고로 지역 문화 허브화
- 국내 미술시장 침체와 글로벌 아트페어의 중동 진출로 인한 시장 재편 흐름
 - 갤러리 57.7% “전년 대비 매출 감소”...미술시장 침체(뉴스1, 2025.10.16.)
 - 갤러리 57.7% 매출 감소...초고가 거래↓, 합리적 가격대 회화 수요↑로 시장 재편
 - 사막 위 미술전쟁... 너도나도 ‘중동’으로 가는 이유(조선일보, 2025.10.15.)
 - 아트바젤·프리즈 2025년 중동 진출...소더비 경매 248억 매출 루브르 아부다비 140만 관람객
- 공연예술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 속 온라인 압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온라인 압포 5년 새 41배 폭증...제재율은 고작 5.9%(kbc광주방송, 2025.10.14.)
 -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포 의심사례 41배 급증, 제재율 5.9% 불과...제도 보완 시급
 - 안산시, 英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協과 공연예술 축제 협력 논의(아시아경제, 2025.10.17.)
 - 안산시 英 에딘버러 프린지協과 협력 논의...교류의향서 전달, 국제거리극축제 성장·국제교류 확대 기대
- 팬덤 중심 마케팅 속 공공기관의 정체성 약화와 문화기관 공공성 회복 필요성 제기
 - 뭇즈에 담겨야 할 ‘공공성’(이투데이, 2025.10.17.)
 - 국립박물관재단 팬덤 마케팅 집중으로 공공성 약화·상품기관 전략 우려
- 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와 소비 확장, 창작자와 팬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문화경제
 - ‘케데헌’ 흐름 타고 ‘뭇즈’로 증명한 국중박, 연간 관람객 500만 돌파... “세계 5위”(인사이트, 2025.10.17.)
 -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관람객 501만 명 돌파...작년 대비 69.7% 증가
 - “오늘은 40만원 썼네요” 2030 난리...신촌에 무슨 일이(한국경제, 2025.10.16.)
 - 웹소설 ‘괴담출근’ 팝업 누적 2억뷰·주말 하루 1,200명 방문, 굿즈 구매 100만 원 이상 소비자 등장
 - ‘예술이 패션·식품으로’...부산문화재단, 청년작가와 협업 상품 출시(문화뉴스, 2025.10.17.)
 - 부산문화재단 청년작가 협업 티셔츠·미역세트 출시...3회째 사업, 저작권료 지급
- 공공성 강화 요구 속 빈곤·불평등 심화된 청년·노인 삶의 구조적 위기 드러나
 - 한국인 7명 중 1명은 가난...“불평등 세상, 공공성 강화하라”(비마이너, 2025.10.17.)
 - 한국 빈곤율 15%, 노인 43%...시민단체 “불평등 해소 위해 공공성 강화” 촉구
 - “월급 올라도 더 가난해진다”...국감서 드러난 청년 삶의 불평등(경북일보, 2025.10.16.)
 - 청년 평균 근로소득세 4년간 39.6%↑, 서울 내집 마련 9.1년...결혼 페널티도 심화
- 소비 진작 정책 효과로 예술·여가 분야 고용 증가, 문화산업의 경제 기여도 확대 확인
 - 9월 취업자 31만 2천 명 ↑...‘소비쿠폰’ 여가·숙박·음식업 호조(KBS뉴스, 2025.10.17.)
 - 9월 전체 취업자 2,915만 4천 명,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7만 5천 명↑, 14.5% 증가
- 코로나 특례 지속 속 수의계약 남발과 전관예우 논란, 공공재정 투명성 요구 증대
 - 정부, 아직도 ‘코로나 핑계’로 年 1.7조 수의계약(한국경제, 2025.10.13.)
 - 코로나19 한시 특례 수의계약 제도 여전히 유지...작년 1.7조 규모 남발·전관예우 의혹 제기